



특집 09

인터넷윤리 문화운동의 국내 추진현황과 제언

황성원 (한국인터넷진흥원)

-
- 목 차 »
1. 국내 인터넷윤리 현황
 2. 정부의 '아름다운 인터넷 세상 만들기' 추진계획
 3. 범국민 대상 인터넷윤리 문화 운동 현황
 4. 결론 및 제언
-

1. 국내 인터넷윤리 현황

2012년 현재 만3세 이상 국민의 인터넷이용률은 78.4%이며, 그중 10-30대 젊은층의 인터넷 이용률이 99% 이상으로 나타났다. 특히, 만3-5세 유아의 인터넷이용률은 72.8%로 2007년 51.0%에서 지난 5년동안 21.8% 증가하고 있다¹⁾. 이와 같이 인터넷 이용환경의 변화와 함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의 성장은 우리 사회의 소통방식에 변화를 이끌고 있으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미디어 분야, 그리고 개인의 일상에 깊이 침투하여 그 영향력이 나날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인터넷이 이렇게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지는 만큼 그 역기능도 두드러지고 있는 실정이다. 유년기부터 인터넷과 컴퓨터를 사용하는 10대 청소년들의 경우 인터넷에서의 의견 표출이 보다 즉각적이고, 재미나 호기심 때문에 허위정보를 유포하거나 신상털기에 참여하는 등 인터넷 윤리 의식이 심각한 수준이며, 특히 청소년들 간에 스마트폰이 대중화 되면서 카톡왕따와 같은

신역기능이 등장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사이버 폭력은 새로운 양산으로 진화하고 있는데, 이는 항시적 연결성, 탈경계성을 특성으로 하는 정보통신기기를 매개로 더욱 은밀하고, 지속적이며, 언어적·사회적 폭력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역기능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가중되고, 최소한의 예방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오랜 기간에 걸친 여론 수렴, 전문가 논의 및 국회 의결 등을 거쳐 법률적으로 '게시판 이용자의 본인확인제'(이하 본인확인제) 제도가 도입되었다. 하지만 본인확인제는 대국민 70%에 가까운 찬성 여론 속에서 도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대표적인 악법'으로 비유되며 다양한 이슈와 논란을 양산하였고, 제도에 대한 헌법소원까지 제기되어 결국 지난 2012년 8월 23일 현재 위헌결정이 내려졌다. 대표적인 국내 인터넷 규제법 본인확인제 위헌결정에 따라, 인터넷 역기능 대응의 한계성 노출 및 제도적 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와 더불어 최근 학교폭력이 전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여기에는 학교폭력 유발 인터넷 환경에 대한 견제·감시·문화조성 장치가 미비하다는 점도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온라인게임 산업육성위주의 관련 법령으로 인해 게임 중독 등 교육적 역기능에 대한 규제 장치가 미비하며, 인터넷·SNS 상의 폭력만화, 음란동영상 등 유해한 정보를 접할 수 있는 통로는 많아지고 있으나 이에 대한 모니터링 등 대책이 미흡한 상황으로 특히, 언어적·정서적 폭력이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활용되는 SNS에 대한 대응책이 현저히 부족한 실정이다. 문화조성 측면에 있어서도 교육계에서 인터넷윤리 교육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되고 있으나 입시 및 진로 등 타교육 분야 우선순위에 밀려 상대적으로 소극적이며, 인터넷윤리 문화 캠페인 역시 체계적인 전략수립 부재로 파급효과가 미흡한 상황이다.

2. 정부의 '아름다운 인터넷 세상 만들기' 추진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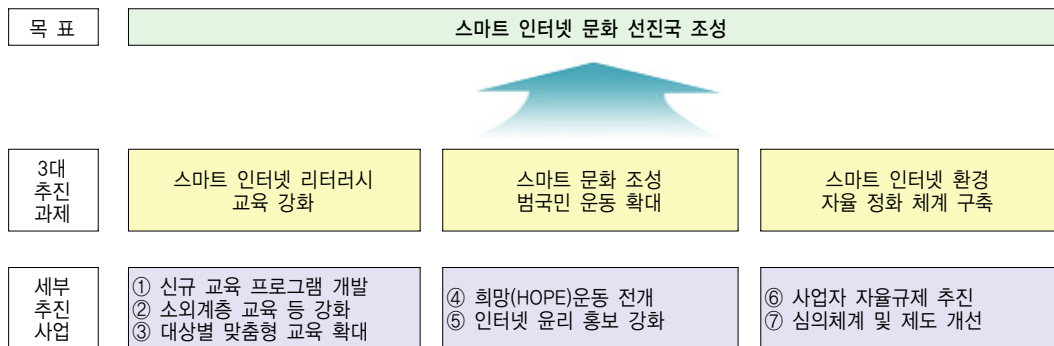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련의 사례들은 우리 사회에 인터넷윤리의 정착과 조기 교육, 정책적인 대안 마련이 절실히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뿐만아니라 달라진 인터넷 환경 하에서 장애

인·노년층 등 소외계층의 정보격차가 심화될 우려가 커지고, 기존과는 다른 새로운 역기능이 출현하면서, 민간 주도에 의한 자율정화 환경 조성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역기능 대응과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범국민 운동을 통한 민간 주도의 자율정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아름다운 인터넷 세상 만들기』추진 계획을 발표하였으며, 스마트 문화 선진국 조성을 목표로 3대 추진과제를 본격 시행하기에 이른다.

이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스마트 시대에 심화되는 정보격차와 새로운 역기능 해소를 위해, 장애인·노인층 등 소외계층 대상 교육과 신규 소셜 미디어의 올바른 활용을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신설, 『스마트 인터넷 리터러시(소양) 교육』을 강화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방통위, 행안부를 중심으로 SNS 등 신규 인터넷 서비스관련 윤리 교육 및 체험형 정보화 역기능 예방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교과부는 교육과정 및 교과서 개편을 통한 학교 정규교육화를 추진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음으로 『스마트 문화 조성』을 위한 범국민 운동의 일환으로, 관계 부처별 민·관 협의체들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인터넷상에서 따뜻한 마음을 전파하고, 건전한 문화의 희망을 확산하는



(그림 1) '아름다운 인터넷 세상 만들기' 추진계획

스마트 희망(HOPE) 운동 추진이다. 또한, 인터넷 윤리 관련 청소년 동아리 육성 및 오프라인 행사 확대 등을 통해 인터넷윤리 캠페인에 대한 파급 효과를 증대하고, 범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노력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스마트 인터넷 환경 하에서 자율 정화 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사업자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자율규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제반 여건을 조성하는데, 사업자와 공동으로 노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더불어 불법유해정보의 확산으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통신 심의체계 개편 및 제도 개선 추진하고, 인터넷 역기능에 쉽게 노출되어있는 저연령층에 대한 보호를 위해 필터링 기술 이용을 활성화하고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한다.

3. 범국민 대상 인터넷윤리 문화 운동 현황

정부주도의 인터넷윤리 문화 운동에 가장 적극적인 부처는 방송통신위원회(이하 위원회)이다. 위원회는 『아름다운 인터넷 세상 만들기』추진 계획을 주도적으로 마련함과 동시에, 세부 추진과제를 바탕으로 교육 및 홍보 중심의 다양한 인터넷문화 운동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에 있다.

3.1 연령별, 대상별 인터넷윤리 교육 강화

먼저, 위원회는 청소년 대상의 다양한 인터넷 윤리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2008년부터 인터넷 윤리 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인터넷 윤리 교실’ 교육 사업을 추진하여 인터넷의 주 이용계층인 학생들이 이를 통하여 자발적 학습과 체험을 통해 인터넷 사회의 진입단계에서부터 인

터넷을 올바르게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2011년부터는 청소년들의 건전하고 올바른 인터넷 윤리의식 함양을 위해 초·중·고 정규 수업인 창의적 체험활동에 인터넷 윤리 교육을 진행하는 인터넷리터러시 창의적 체험 활동을 운영해왔다. 2012년에는 전국의 초·중·고등학교 120개교에서 3,160명이 인터넷 보안, 소셜미디어 특성, 바람직한 댓글문화를 익힐 수 있는 교육을 체험했다. 특히 청소년들의 스마트폰과 SNS 등을 활용한 사이버폭력이 심각해짐에 따라 학교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사이버폭력 예방 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 및 소셜미디어리터러시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고 있다. 2013년 2월 시범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연내 인터넷윤리교육 정보서비스(nethics.kr)에서 수업지도안 형식으로 배포되어 각 학교에서 수업시간을 활용하여 자체 교육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올바른 인터넷 윤리의식 홍보를 위해 전국의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연예인 및 전문 강사진이 찾아가는 집체교육 방식의 순회교육이 진행되었다. 특히,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및 저작권 보호 등 생소한 내용의 이해가 쉽도록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골든벨 형식의 퀴즈와 시청각 자료가 활용되었다. 2012년 전국 72개교 17,818명을 교육하였으며 향후에도 정보보호 및 인터넷 윤리에 대해 강화된 교육 자료를 통해 전국의 교육 대상을 넓힐 예정이다.

저연령층의 인터넷 이용률이 증가함에 따라 2011년부터 미취학 아동의 올바른 인터넷 이용습관 정립을 위해 유아 대상의 미디어 체험교실도 운영중에 있으며, 2012년에는 교육콘텐츠를 보완하여 총 3,290명 대상으로 추진되었다. 뿐만 아니라 인터넷에 무분별하게 노출될 경우 더 큰 위험을 갖는 장애청소년들에게 인터넷 소양제고 및 올바르게 인터넷을 활용 할 수 있도록 장애청소년



(그림 2) 청소년 대상 인터넷윤리 교육

년 대상 인터넷리터러시 교육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2년 전국 55개교 383명의 장애청소년들 대상으로 교육이 진행되었다.

이와 더불어 인터넷윤리 교육 저변 확대 및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원 교육 및 장학관·교장 연수를 진행하고 있다. 시간과 장소의 제약없이 많은 교원이 인터넷 윤리 및 미디어 교수법을 배울 수 있는 원격 교원 직무연수 과정은 2012년 초·중·고등학교 교원 및 유치원 교원 총 2,223명을 대상으로 추진되었으며, 교육 현장에서 인터넷윤리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교장, 교감, 장학관, 장학사 등 교육리더 273명을 대상으로 인터넷윤리 교육전략 수립방안, 스마트기기 체험 교육 등으로 이루어진 오프라인 교원 직무연수 과정을 진행하였다.

아울러 초·중·고 자녀가 있는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교폭력을 가중시키는 청소년 사이버폭력 예방 등을 위해 가정에서 실천하는 올바른 인터넷 이용습관 정립방법 교육을 진행해왔다. ‘사이버폭력으로부터 자녀 지키기, 사이버 공간의 위험으로부터 자녀 보호하기, 자녀의 올바른 인터넷 이용습관 기르기’ 등 다양한 주제로 진행되며 2012년 3,411명(82개교)의 학부모 대상으로 추진되었다.

인터넷상에서 이용자 스스로 인터넷 이용 의식과 소양 점검하고 실시 결과에 따른 진단과 유형

분석, 맞춤형 교육을 제공받는 인터넷윤리의식 자가진단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는데, 특히 2012년에는 2009년 개발된 인터넷윤리의식 자가진단 기존 문항의 신뢰도를 높이고 변화하는 인터넷 환경을 반영하기 위하여 인터넷윤리의식 자가진단 서비스 개선 작업을 진행하였으며, 스마트폰 보급 확대 및 모바일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인터넷윤리의식 자가진단 모바일 앱(App)을 개발·보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2013년에는 SNS 등의 활성화로 학교 폭력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사이버폭력이 없는 학교를 만들기 위한 교육전략 및 방안을 공유하는 교원 직무연수와 방과후 학교, 학교별 방문 등을 통한 초·중·고등학생 대상 사이버폭력 예방 교육을 신규로 추진할 예정이다.

3.2 언론매체를 적극 활용한 인터넷윤리 홍보 확대

인터넷 생활질서를 정착하여 사이버 역기능에 대한 근본적 예방을 위해 인터넷윤리의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한 대국민 홍보활동 역시 강화해 나가고 있다. 인터넷윤리 의식 강화를 소재로 한 공익광고를 제작, 지상파 및 케이블 TV, 라디오 등을 통해 방영하고 있으며, 인터넷의 순기능과 역기능에 대한 기획영상 프로그램을 제작,

KBS를 통해 방송하기도 하였다. 뿐만 아니라 신문광고 및 좌담회 형식의 기사를 게재하는 등의 다양한 수단을 활용하여 일반국민에게 인터넷윤리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바람직한 인터넷 문화 기반 조성에 대한 범국민적 공감대 형성에 주력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인터넷윤리 홍보와 관련하여 '의식 형성기'를 시작으로 '환경 구축기'를 거쳐 '의식 확산기' 등 단계별 홍보계획을 전략적으로 수립하고 단계에 맞는 TV, 라디오, 신문, 포털사 등 다양한 매체별 광고 송출을 통해 중·장기적인 인터넷윤리 강화를 위한 사회적 의식제고 활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전략이다.

2012년에는 청소년 대상 인터넷윤리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3월 서울시 교육청과 공동으로 서울시 초·중·고 1,284개교에 인터넷윤리 실천수칙 포스터를 배포하였으며, 아름다운 인터넷세상 만들기 주간이 있는 6월에는 방송 서울시내 주요 버스, 지하철, 지상파·케이블 TV, 라디오 및 신문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인터넷윤리 홍보를 집중적으로 추진하였다.

특히 인터넷을 통한 청소년들의 사이버폭력이 심각해짐에 따라, 인터넷의 부작용에 대한 실태 보고를 바탕으로 사이버 폭력의 해악을 과학적으로 규명하여 건전한 인터넷윤리 문화 정착의 중요성을 조명하는 다큐멘터리를 EBS를 통해 방송하였으며, 이 밖에도 언론사와 협력하여 '매월 말 일은 악플지우는 날', 'U클린 토크콘서트', '스타와 함께하는 아름다운 인터넷세상 만들기 응원 영상' 등 인터넷윤리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3.3 체험형 한국인터넷드림단 운영

위원회는 교육 및 홍보뿐만 아니라 올바른 인

터넷 이용문화를 선도하고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는 청소년 육성을 위하여 '한국인터넷드림단'을 창설하였다.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함께 전국 초·중학생이 참여하는 한국인터넷드림단을 통해 청소년들이 건전한 인터넷문화를 선도하고 활성화하는 주역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였다(2010년 1기 831명 → 2011년 2기 2,853명 → 2012년 3기 5,598명). 또한 드림단 지역별 발대식을 통해 전국적인 참여를 독려했다(전국 16개 지역, 20개 학교).

연간 활동으로는 사이버 범죄 유형 및 침해사고 예방 학습을 위한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및 한국인터넷진흥원 침해대응센터(KISC) 탐방, NHN, DAUM 등 인터넷 관련 기관 탐방, 청소년들이 선호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전문가(컴퓨터 프로그래머, 프로그래머 등) 멘토링 및 '꿈 찾기' 멘토링 프로그램을 전개하였다.

또한 인터넷 리더 육성 캠프, 드림단 활동 내역 및 지역사회 소식 등을 알리는 드림단 기자단 운영, 인터넷 문화 및 다양한 사회 이슈에 대해 생각해 보는 온·오프라인 토론회, 인터넷 환경 개선 활동 내 유해물 신고 게시판 운영(지킴이), 인터넷 활용 사회공헌 활동인 '인터넷 효(孝)앨범' 제작 및 증정,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하고 남을 돕고 배려하는 소양 배양을 위한 드림단 봉사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3.4 다각적 인터넷윤리 범국민 캠페인 전개

마지막으로 정부/산하기관(12), 교육계(3), 언론사(13), 네트워크제공자(8), 민간단체(42)가 참여하는 아름다운 인터넷 세상 범국민협의회와 연계하여 '아름다운 인터넷세상'을 위한 연간 캠페



(그림 3) 건전한 인터넷 이용문화 조성 캠페인

인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으며(2010년 55개 → 2011년 65개 → 2011년 78개), 모바일앱·UCC·표어·포스터 등 우수한 인터넷윤리 콘텐츠를 공모, 시상하는 인터넷윤리대전 등 아름다운 인터넷윤리 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였다.

또한, 건전하고 안전한 인터넷 이용문화 확산 및 범국민 참여 유도를 위한 ‘2012 아름다운 인터넷 세상 주간선포식’ 및 주간행사를 2012년 6월 11일부터 16일까지 개최하였다. 동 기간 중 아름다운 인터넷 세상 거리캠페인, 사랑의 PC보내기, 온·오프라인 서약 캠페인, 골든벨 윤리교실, 인터넷 효(孝)앨범 증정식, 선플달기 캠페인, 인터넷윤리 강화 세미나 등 다양한 온·오프라인 행사를 기획, 청소년, 노인, 일반인 등의 폭넓은 참여를 유도하여 52,970명이 참석하였다. 그리고 부산 및 광주, 여수(여수세계박람회) 지역에서 체험형 인터넷윤리 체험관을 운영, 드림단원, 학생 및 일반인 등 약 23만여명 방문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2013년에는 지리적인 여건 등을 고려하여 분당소재 한국잡월드 등 수도권 지역에 상설 체험관을 추가 구축하고, 교육적 효과와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 기획·개발을 통해 인터넷윤리 체험 공간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4. 결론 및 제언

지금까지 살펴본 국내 인터넷윤리 문화 운동의 대략적인 현황을 바탕으로 보다 효과적인 정부주도의 인터넷윤리 문화 운동 추진을 위해 몇가지 제언을 함으로써 결론을 맺고자 한다.

첫째, 인터넷윤리 교육의 강화이다. 현재 다수의 교육콘텐츠와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으나, 유관기관과의 유기적 협력을 통한 시너지 효과가 더욱 요구된다. 특히, 인터넷윤리 의식 수준이 미약한 초등학생 등 저연령층에 대한 인터넷윤리 교육 강화를 위해 초등학교 때부터 인터넷윤리 교육을 필수 교육으로 지정하고, 보다 충실한 인터넷윤리 내용을 교과서에 게재하는 등 교육 시간을 단계적으로 늘려야 한다. 또한 학습수준, 흥미, 인접환경 등에 따라 교육대상을 특성화하는 등 이용자 맞춤형 교육도 강화해야 한다.

둘째, 민간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인터넷윤리 캠페인 전개가 필요하다. 인터넷이 발전됨에 따라 인터넷을 통한 사회 참여는 증대되고 있으나 문화와 규범이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하는 문화지체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지체 현상은 정부의 단발성 정책 추진으로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포털, 학교, 시민단체 등 유관 기관들의 공동 참여가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참여 기관

간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대국민 온라인 교육 및 홍보를 위한 채널을 확보하고 운영하여 장기적으로 단계적인 캠페인 추진이 필요하다. 더불어 민간 협회·단체와의 관련 행사 연계를 통해 지속적인 오프라인 이벤트 및 온라인 캠페인을 추진하여, 인터넷윤리 확립을 위한 범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

끝으로, 우리 사회의 인터넷윤리 문화 운동과 급효과 증진을 위해 인터넷에서 발생하는 근원적인 문제를 분석하고, 이해 관계자들을 포함한 모든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올바른 정책을 제안할 수 있도록 풍부한 학문적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인터넷 역기능에 대한 대안이 아닌, 더 나은 인터넷 문화를 위한 비전을 제시할 수 있도록 사회학, 교육학, 심리학, IT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와 전문가가 동참하여 인문학과 정보기술을 아우르는 거시적 연구와 전문가적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저 자 약 력



황 성 원

이메일 : hsw@kisa.or.kr

- 1992년 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 (학사)
- 2010년 한양대학교 광고홍보학 (석사)
- 1991년~1992년 KOBACO
- 1993년~1994년 LG증권
- 1996년~1998년 KISDI
- 2001년~현재 한국인터넷진흥원 인터넷문화진흥단 단장
- 관심분야: ICT 정책, 문화, 홍보, 언론, SNS

참 고 문 헌

- [1] 한국인터넷진흥원, 2012년 인터넷이용실태조사, 2012.
- [2] 인터넷윤리실천협의회, 인터넷윤리, 이한미디어, 2012.
- [3] J. Suler, "The Online Disinhibition Effect", CyberPsychology & Behavior, Vol.7, pp.321-326, 2004.
- [4] R. Spinello, "Cyber Ethics: Morality and Law in Cyberspace", Subury: Jones and Barlett Publishers, 2000.
- [5] W. Maner, "Unique Ethical Problems in Information Technology", Science and Engineering Ethics, Vol.2, No.2, 1996.